



책 속의 밑줄 긋기

“나는 모든 길은 세상사와 통한다고 믿는다. 집 앞을 나서면 길 이 시작되는데,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길 위에서 웃고 울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걷는 그 인생길에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나는 속도를 강조하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나 걷기 길에는 충분한 이야기가 있고 신화

“여행은 길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는다. 그저 별을 따라 갔 을 뿐, 어느 철학자의 말이다. 이 말을 떠올리면 삶이 여행임을 새삼 몸속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짐을 꾸리고 밖으로 나가 별하나를 찾아 떠나고 싶어진다. 이제 그 별을 찾아 떠나야 할 때이다.”

~[길에서 길을 묻다]중에서

~[길 위에서 마주친 우리문화]중에서

#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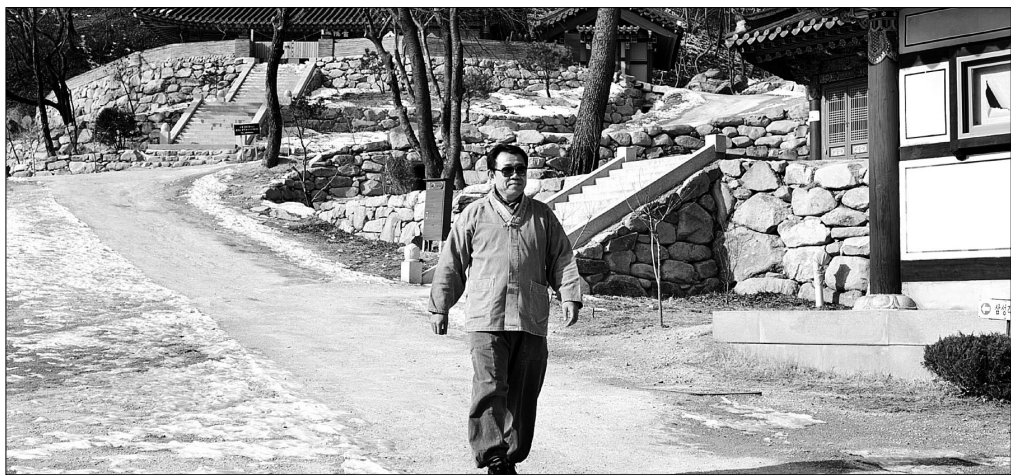
## 해파랑길 770km에 입혀진 풍성한 스토리

### 길에서 길을 묻다

김영현 지음 | 열린사상 펴냄 | 1만5천원



걷기 열풍이 점점 거세다. 걷기는 특별한 기술이 나 기초체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부담없는 운동이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는다. 또한 꾸준한 한다면 근력증가, 비만예방 등 기본적 운동효과를 물론, 혈액순환 촉진,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도 좋아 인기가 높다.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운동중 단연 최고로 꼽힌다. 그래서 인지 유명인들중에서도 걷기 예찬론자들이 많다. 2001년 한국워킹협회를 창립해 현재 회장까지 맡고 있는 오봉부 연세대 명예교수는 “걷는 이유에 대한 특별한 정답은 없지만 걷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은총”이라고 격찬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인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역시 “본래 걷는다는 일 그 자체가 인간의 사유작용을 북돋아주는 가장 훌륭한 행위”라며 “느림의 미학에 대한 일깨움이며, 우리 일상생활에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가장 유효한 휴식”이라고 평했다.



모든길은 세상과 통한다고 믿는 저자 김영현 씨가 신촌동 아래 위치한 고성 화암사 경내를 걷고있다.

신라 화랑 국토 순례하며 심신 단련한길  
길위에서 만난 사찰, 전설, 문화 등 버무려  
미리 조사한 자료 현장서 비교 체험  
작년 남해안 이어 올해 서해안 일주 계획

걷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리 조사한 자료들을 현장서 하나씩 짚어가며 비교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느끼고 배웠다. 그 기록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저자는 국도나 걷기 길에는 충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신화와 전설이 흘러 넘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파랑길 언저리에 있는 인물과 자연,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문학적 내용들을 찾아내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이 다른 걷기 책과 다른 부분이다. 특히 불자인 저자는 해파랑길서 만난 사찰과 불교이야기를 들려준다. 경주를 지나면서 저자는 500년동안 곳곳에 불상을 세워 기록과 국대민안을 발원한 신라인들을 생각했다.

저자는 책에서 “바위가 많은 경우 남산을 보며 신라인들은 그 바위속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바위신앙과 불교신앙이 합쳐진 것입니다. 부처님 얼굴에 바로 신라인의 얼굴이 깃들여 있습니다.”라고 피력한다. 해파랑길을 화랑의 길, 불국토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한 저자는 내륙에 위치한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삼화사에 대한 동경도 쏟아낸다. 삼화사는 고려 왕권이 후삼국 세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게 해달라고 기원한 절이라는 설명과 함께 삼화사를 품고 있는 청옥산과 두타산이 그렇다고 했다. 특히 무릉계곡 초입의 넓은 무릉반석에 누우면 더운 여름 피서도 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신선처럼 무릉도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는 낭만적 감성도 토해낸다. 책 속에는 영화속 무대도 등장한다. 유지태와 이영애가 열연한 바로 ‘봄날은 간다’ 영화이다. 저자는 영화속 여주인공인 은수가 살던집이 동해시 묵호동 삼분아파트란 정보도 알려준다. 자못 흥미롭다. 이렇듯 이 책에는 신화와 전설, 사찰 내력, 대중연예의 체취도 물론 묻어낸다. 문학가이자 교사, 철학자라는 다양한 시각을 품고 직접 탐험하며 걷고 보고 느낀 것을 기록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함께 곳곳의 숨은 비경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수록해 놓았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로 찍었지만, 책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지인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은 그들과 함께 만든 공저작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긴 코스로 짜여진 길은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 독자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체험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그들을 위해 저자는 구간 걷기의 체험과 비용, 주의할 점까지 세심하게 안내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 여행을 나서고 있고, 걷기 길이 각 지역마다 만들어지지만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 뿐 풍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스토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쉬운 교통편이나 맛 집을 소개하고 몇몇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여행서가 아니다. 저자는 ‘우리의 걷기 길에 풍성한 스토리를 입히자’는 취지로 해파랑길 곳곳에 꼭꼭 숨겨진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려고 노력했다. 해파랑길을 코스별로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걷는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다.

저자는 올해 또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해안을 일주하는 것이다. 유종한 몸(?)에도 걷기를 중단하지 않는 저자처럼 새해 우리도 집앞길부터라도 걸어보자. 천천히 걷노라면 길에서 자신의 본면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 절터, 마애불, 명부전 등이 궁금하다면

### 길위에서 마주친 우리문화

글 사전 이경덕 | 책씨 펴냄 | 1만5천원



생각부터 비석까지, 흔한 것에서 시작하는 문화 여행

<길 위에서 마주친 우리 문화>는 이야기가 있는 우리 문화 여행서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생가, 돌장승, 솟대, 누와 정, 다리, 창고 문 등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들이다. 우리 문화의 대부분은 이처럼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유적과 유물들이다. 마치 대한민국을 만드는 99%가 일반 대중들이 것처럼 이 책에서 만나는 유적과 유물들은 우리 전통 문화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하찮지만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다. 저자는 돌탑처럼 흔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문화 여행을 통해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냈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게는 박달나무 껍질로 짠 차마를 주면서 그것을 입고 돌을 날라 성을 쌓고, 아들에게는 석 자나 되는 굽이 높은 나막신을 주면서 그것을 신고 서 울에 갔다 오라고 일렀다. 남매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내기를 시작했다. 아들은 나막신을 신고 서울로 떠났고 딸은 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딸이 성을 거의 쌓도록 아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과부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밤을 한 말 살아서 딸에게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하라고 주었다.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이다.

딸은 어머니가 준 밤을 모두 먹고 다시 돌을 쌓기 시작했다. 마침내 돌 하나만 올려놓으면 성은 완성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어머니는 얼른 찰밥을 해서 딸에게 가지고 갔다. 딸은 찰밥을 먹고 있을 때 서울로 갔던 아들이 돌아왔다. 딸은 어머니의 방에 때문에 내기에서 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딸은 스스로 바위를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과부는 아무리 아들이 이 기기를 바랐지만 막상 딸이 죽자 너무 슬펐다. 과부는 산봉우리에 일곱 개의 바위를 세우고 거기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후시 상당산성에 가게 되면 일곱 개의 바위와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위를 찾아보라. 또한 산 중턱에 아들이 오줌을 누여 구멍이 뚫린 바위도 있다.

### 사찰관련 읽을거리 가득

### 우수출판콘텐츠에도 선정

성을 다 쌓은 다음에 먹었다고 했다. 그러나 과부는 찰밥부터 먹고 성을 쌓으라고 역정을 냈다. 하는 수 없이 딸은 찰밥을 먹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뚫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경우와 너무도 똑같은 서사구조를 지닌 이야기이다. 이것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돌탑 하나에도 커리어 쌓여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태어나서 배우고 경험하고 살다가 죽는 과정을 따라 생각에서 비석까지 둘러 보게 구성하였다. 눈길을 돌리거나 발길을 돌리면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유적 유물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보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책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는 여행의 의미를 부여한다.

### 장승, 성, 사찰 등 문화 콘텐츠 다양

끝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말이다. 이 책으로 인해 우리 문화의 탐색이라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 보는 것도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해외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자극을 받거나 휴식을 자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의도를 내면으로 돌려서 우리 문화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체기를 겪고 있는 시기니까, 정체기에는 누구나 기존의 것을 매듭 짓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한다. 이 책이 그 시작의 첫 단추가 되는 여행을 떠나게 해줄 것이다.

책은 읽기 편하게 인덱스 작업을 해놓았다. 장승과 벽수, 성, 한옥, 절, 절터, 마애불, 산신각과 명부전, 부도, 탑 등등. 불자들이라면 사찰에 관련된 읽을 거리가 풍부해 큰 도움이 될 듯하다.

한편 우수출판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해 건전한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도에 맞게 2,590원이 응모한 가운데 18.5: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될 정도로 이 책은 이미 내용의 충실함이 검증됐다.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저자의 우수출판콘텐츠를 발굴하고, 출판사에는 제작비를 지원해 출판생산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김주일 기자

### 저자 이경덕은?

문화인류학 박사이다. 현재 대학서 종교문화, 신화와 축제, 아시아문화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쓴 책으로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신화, 우리 시대의 거울> <신화 읽어주는 남자> <역사와 문화로 보는 일본 기행> 등이 있고, 번역한 책으로 <고민하는 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등이 있다.

##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예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받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쉽지만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을 바로 알고 모든 이를 바

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깨달기 위해 수 십년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에너지를 백회와 송과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7개의 차크라를 깨워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마음의 눈 영안이 떠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슴의 변화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를 쌓아놓은 업식, 관념, 예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자동화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예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의 인생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법법 - 몸매 근육과 근조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를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땀 등)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가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정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 ①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승과 불자분들
- ② 업정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 ③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 ④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 ⑤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 ⑥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 ⑦ 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 ⑧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헤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 ⑨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 ⑩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상담비용 : 5만원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학회 출장강의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카페 : http://cafe.naver.com/dlibdli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

## 제 10기 불교의식(범음·범패) 학인모집

###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승가회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 <교육과정>

기본 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서, 종승, 향수하례, 삼보통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명시식.
중급과정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라니 작법, 범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청, 목탁, 요령

-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개강일시 : 2015년 2월 7일(토요일) 오후 2시
- ◆ 수업 : 매주(금·토) 오후 2시 ~ 5시까지
-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TEL 053)986-1080 H·P 010-9361-5566

☎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불교대학 · 무파사 학장 일관 합장